

한국인 학습자들의 영어 재귀대명사 해석 양상: 통사적 결속 조건과 화용적 결속 조건을 중심으로

안수진 (한국교원대학교)

김지혜 (한국교원대학교)

An, Soojin and Ji-Hye Kim. 2019. An experimental study of binding interpretations on English reflexive pronouns by Korean L2 learners: Conditions on grammatical binding vs. pragmatic binding. *Korean Journal of English Language and Linguistics* 19-2, 211-232. This study investigates how Korean learners of English as Foreign Language interpret English reflexives in regard to i) whether the learners interpret English reflexives in accordance with binding domain and c-commanding conditions of binding, and ii) whether pragmatic information affects the learners' interpretation of grammatical binding of English reflexives. Two tasks — acceptability judgment task based on truth value and truth value judgment task based on stories — to decide the appropriate antecedent for reflexives were conducted with 67 university students in Korea (as the experimental group) and 12 English native speakers (as a control group). Overall results demonstrated that i) Korean learners of English showed L1 transfer effects with English reflexives in their interpretations related to binding domain and commanding condition, and ii) For Korean learners of English, pragmatic conditions often override syntactic conditions for binding, especially when appropriate context is given. Further discussions will follow.

Keywords: Binding Principle A, reflexive binding, pragmatic/logophoric binding, grammatical/core/syntactic binding, Korean learners of English

1. 서론: 제2언어 습득과 영어재귀사 결속현상

언어 습득에 있어서 재귀대명사와 같은 대용어가 쓰인 문장의 의미를 정확하게 이해하기 위해서는 해당 대용어와 결속되는 선행사를 파악할 수 있는 능력이 필요하다. 이는 그 언어의 모국어 화자뿐 아니라 해당 언어를 배우는 학습자들에게도 재귀사가 나타난 담화와 문장의 의미를 적절히 이해하기 위해 필요한 능력이라고 할 수 있다(Felser, Sato and Bertenshaw 2009). 그러나 Demirci(2000)에 따르면 재귀대명사와 선행사의 결속 자체는 모든 언어에서 구현되는 보편적인 법칙임에 비해, 재귀사의 결속 규칙과 그에 따른 해석은 언어마다 다르게 나타난다. 이에 모국어와는 다른 결속 규칙을 지닌 목표어를 배우는 제2언어 학습자들이 목표어의 재귀사를 해석할 때 어려움을 가지게 될 가능성이 있다.

한국어와 영어의 경우, 재귀사의 통사적 결속 조건 — 결속영역과 구조적 성분통어 제약 — 이 다를 뿐 아니라 재귀사 해석에 있어 화용적 정보가 영향을 미치는 정도도 다르다. 한국인 EFL 학습자들의 영어 재귀사 습득 정도를 조사한 기존의 국내 연구들(김희숙, 문은주, 여도수 2002, 신봉수 2006, 윤미영 2003, 최정아, 이예식 2016, 최정아 2016)은 이러한 영어와 한국어의 통사적 결속 조건의 차이에 근간하여 학습자들의 영어 재귀사 해석 양상을 조사하였으며, 명시적인 지도 없이 영어 성취도가 높아짐에 따라 학습자들이 성공적으로 영어의 통사적 결속 규칙을 습득할 수 있는지에 대한 연구를 진행하였다. 공통적인 결과로 한국인 학습자들의 경우 영어 재귀대명사 해석에 있어서 모국어인 한국어의 결속 영역 지식의 전이로 보이는 오류가 나타났으며, 대체로 영어 능숙도가 높아질수록 영어 재귀사의 결속 영역 제약 조건을 준수하여 재귀사의 선행사를 찾는 경향이 높아졌음을 보여주었다. 그러나 한국어와 영어가 재귀사 해석에 있어서 화용적 조건 또한 중요한 역할을 한다는 점을 고려하여 두 가지 조건을 함께 다룬 연구로는 유기윤과 김수연(2015), 유기윤(2016)의 연구를 제외하고는 거의 이루어지지 않았다. 이 때 유기윤과 김수연(2015), 유기윤(2016)의 연구에서는 개별 문장을 이용한 사지선다형 과제만을 실시하였지만 본 연구에서는 이야기의 형태로 제시된 문맥이 주어졌을 경우 학습자들이 영어의 통사적 결속 조건을 준수하는 정도를 함께 알아보하고자 한다.

본 연구는 영어의 통사적 결속 조건과 화용적 결속 조건을 함께 고려하여, 한국인 학습자들의 영어 재귀사 해석 양상을 조사하였다. 다음 장에서는 본 연구문제들의 근간이 되는 결속현상에 대한 이론적 배경을 소개하고자 한다. 3장에서는 연구문제에 대한 가설을 제시하고 연구 방법을 설명한 후, 4장에서 연구결과를 제시하고 논의할 것이다. 마지막 5장은 연구의 잠정적 결론과 이에 따른 교육적 제언으로 마무리하고자 한다.

2. 결속이론: 통사적 결속과 화용적 결속

2.1 결속이론과 통사적 결속조건

표준결속이론(Standard Binding Theory)에 의하면 영어의 재귀대명사는 결속원칙 A (Binding Principle A)를 준수하며 결속영역 내에서 재귀사를 성분통어하는 선행사를 가져야 한다. 표준결속이론에서 이야기하는 결속의 개념은 선행사와 재귀대명사는 같은 절 내에 나타나야 한다는 결속영역 제약과 선행사가 재귀대명사를 성분통어해야 한다는 성분통어 제약을 합하여 표현된다. Carnie(2013)는 α 를 선행사, β 를 재귀대명사로 가정하며 표준결속이론의 결속 조건을 다음과 같이 정의한다.

(1) 결속조건(Binding condition)

- a. α 가 β 를 성분통어하고
- b. 선행사와 재귀대명사가 같은 절 내에서 공지시 관계에 있다면 α 는 β 를 결속한다.

(Carnie, 2013, p. 152)

(2a)와 달리 선행사가 재귀사를 성분통어하지 않는 (2b)의 문장은 비문이 되며, 선행사가 재귀사를 성분통어 하더라도 (2c-d)처럼 선행사가 결속영역 밖에 있으면 비문이 된다. Chomsky(1980, 1981)에서 제시하는 결속영역은 (2e)에 나타난 바와 같이 한정절을 넘어가는 결속(예문 2c 참조)을 금지하는 시제문 조건(Tensed S Condition, TSC)과 명시주어를 넘어가는 결속(예문 2d 참조)을 금지하는 명시주어 조건(Specified Subject Condition, SSC)으로 정의된다.

- (2) a. [Mary's mother]_i likes herself_i.
- b. *[Mary_i's mother] likes herself_i .
- c. *Mary_i believes [that John likes herself_i].
- d. *Mary_i loves [John's article about herself_i].
- e. 결속영역

(a) 시제문 조건(Tensed-S Condition): 재귀대명사는 그것을 포함하는 최소 시제절(minimal tensed clause)내에서 결속되어야 한다. (Chomsky 1981)

(b) 명시주어 조건(Specified Subject Condition): 재귀대명사와 선행사 간에는 명시주어가 개입해서는 안 된다. (Chomsky 1981)

2.2 화용적 결속

이와 같은 통사적 결속 조건에 따라 영어문장에서는 재귀사가 나타난 최소의 시제절이 결속영역으로 인정되지만, (3a)의 예문을 보면 재귀사 himself와 결속되는 선행사가 시제절 밖에 위치하여 영어의 통사적 결속 조건을 위반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영어 화자들에게 허용되는 정문이 있음을 알 수 있다.

- (3) Bill_i remembered that [the Times had printed [a picture of himself_i]].

(Pollard and Sag 1992, p. 13)

이러한 문장은 재귀대명사의 통사적 결속 조건만으로는 설명할 수 없는 예외적인 문장이며 면제결속(exempt binding)이라는 현상으로 나타나는 면제대용어(exempt anaphor)의 개념으로 이해되어야 한다. Pollard와 Sag(1992)는 이러한 문장에 대해, 통사적 결속영역 내에 통사

적 제약조건을 충족시키는 선행사가 없을 경우에 대응어는 통사적 결속조건에서 면제되며, 장거리결속(long-distance binding) 또는 담화결속(discourse binding)이 가능해진다고 주장했다.

이와 같이 재귀사의 면제적 결속이 허용될 때, 면제대용어는 통사적 결속조건 of the 제약에서 자유로운 대신 담화적 조건을 만족시켜야 한다(Sells 1987, Huang and Liu 2001). Sells(1987)가 제안한 면제대용어의 담화적 조건은 인지전달성(logophoricity)의 개념으로 구체화할 수 있으며, 인지전달성은 문장의 담화 내에서 잠재적 선행사가 가지고 있는 담화적 역할(role) 혹은 조건으로 설명할 수 있다. Sells(1987, p. 455)는 ‘인지전달성’을 구성하는 세 가지 큰 조건, 즉 인식자 조건(logophoric condition)으로 SOURCE(정보의 근원, 즉 담화를 전달하는 화자), SELF(담화 내 사건이나 감정 또는 태도를 경험하는 주인공) 그리고 PIVOT(담화상의 관점이 기술되는 주체로서의 담화의 주인공)을 제시했다. 이 세 가지 인식자 조건에 대해 Sells(1987)가 제공한 간단한 정의는 다음과 같다.

(4) 인식자 조건(logophoric condition)

- a. SOURCE: one who is the intentional agent of the communication
- b. SELF: one whose mental state or attitude the content of the proposition describes
- c. PIVOT: one with respect to whose location the content of the proposition is evaluated (Sells 1987, p. 457)

이러한 면제대용어와 인식자 조건에 대해, Sells(1987)와 Huang과 Liu(2001)는 영어 재귀사의 통사적 결속 조건에 부합하지 않는 선행사라 할지라도, 재귀사와 공지시적 관계에 있고 인식자 조건을 충족하는 명사라면 해당 재귀사의 선행사가 될 수 있다고 설명하였다. 이와 같이 면제적 결속의 분포가 화용적 결속 조건에 의해 한정적으로 허용된다는 것은 (5)의 예문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 (5) a. Mary heard from John_i that there was a picture of himself_i in the post office.
- b. *Mary said about John_i that there was a picture of himself_i in the post office. (박희문 1994, p. 58)

예문 (5a)에서는 John이 재귀사 himself가 나타난 종속절의 명제를 전달하는 SOURCE이기 때문에 영어의 결속영역을 넘어 재귀대명사인 himself와 결속이 가능한 반면에, (5b) 문장에서 John은 종속절의 내용을 전달하고 있는 SOURCE도, 사건의 경험자(SELF)도 사건의 관점이 기술되는 주체(PIVOT)도 아니므로, 인식자 조건을 충족하는 선행사가 될 수 없어 비문으로 처리된다.

이제까지 설명된 영어 재귀사의 결속현상을 종합해 보면, 재귀사는 결속영역 내에서 성분통

어하는 선행사를 가져야 한다는 통사적 결속조건을 만족시켜야 하며, 이러한 통사적 결속조건을 만족시키는 선행사가 없을 경우에는 인식자 조건 혹은 담화적 조건을 만족시키는 장거리 선행사 또는 담화 내의 선행사에 의해 화용적으로 결속될 수 있다. 이와 같은 영어의 결속현상을 제2언어로 습득하는 한국인 학습자들의 영어 재귀사 해석 양상을 논의하기 위해서는 영어와 한국어의 결속현상에 있어서 어떤 차이가 있는지 먼저 알아볼 필요가 있다.

2.3 영어와 한국어 결속현상의 차이

영어와 한국어 사이에는 결속현상에 있어서 몇 가지 차이가 존재한다. 먼저 영어의 재귀사는 구조적으로 성분통어하는 선행사를 요구하지만, 한국어의 경우 하위통어(Sub-command, Tang 1989)라는 이름 하에 재귀사를 성분통어하는 명사구의 핵이 무정명사(inanimate noun)일 때, 명사 내에 있는 소유주가 재귀사를 결속할 수 있다. 아래의 예에서 나타나듯이, 영어에서는 성분통어 제약을 위반하는 (6a)와 같은 문장이 비문인 반면, 같은 구조의 한국어 문장인 (6b)에서는 명사 'pride'가 무정명사이므로 John이 재귀사 '자기자신'의 선행사가 될 수 있다.¹ 하위통어(sub-commanding)에 대한 정의는 (6c)에 나타나 있다.

(6) a. *John_i's pride hurt himself_i.

b. 존_i의 자존심이 자기자신_i을 해쳤다.

c. (하위통어):

(a) α가 β를 성분통어하거나,

(b) α가 β를 성분통어하는 명사구에 내포해 있거나 α가 내포되어 있는 명사구가 주어 자리를 차지하고 있을 때 α는 β를 sub-command 한다. (Tang 1989, p. 101)

또한, 한국어에는 영어의 'pronoun+self'의 형태와 같은 복합 재귀대명사 '자기자신'뿐 아니라 통사적으로 장거리 결속이 허용되는 '자기' 혹은 '자신'과 같은 단일형태소 재귀대명사가 존재하는데, 단일형태소 재귀사에 대해서는 영어의 결속영역보다 더 큰 문장 전체가 결속 영역으로 인정된다(Cole, Hermon and Sung 1990, Huang and Liu 2001). 또한 Kim과 Yoon(2009)의 한국어 원어민화자들을 대상으로 한 실험연구에서는 단일형태소 재귀사 뿐 아니라 복합형태소 '자기자신'도 화용적 조건을 충족하며 면제대용어로서 장거리결속이 가능한 것을 보여주었다. 따라서, 영어의 경우 (7a)는 재귀사가 TSC와 SSC를 위반하여 비문이지만, 이와 같은 구조를 지닌 한국어 문장 (7b)는 정문으로 인정된다.

¹심사자가 지적한 바와 같이 (6b) 문장의 문법성에 대해서는 단지 명사의 유정성 여부뿐 아니라 metonymy나 '자존심'이 함의하는 Experiencer와 같은 다른 요인들의 영향에 있어서도 그 관련성을 간과할 수 없다. 추후연구에서는 유정성 여부와 함께 관련 요소들을 함께 다룰 수 있는 다양한 실험 문장들의 대조를 통해 연구의 타당성과 일반화 가능성을 향상시킬 필요가 있다.

(7) a. *Mary_i said [that Ann hit herself_i].

b. 메리_i는 [앤_j이 자기자신_{i/j}을 때렸다고] 말했다.

이와 같이 한국어의 재귀대명사는 (7b)에서처럼 문장 내에 잠재적 선행사가 하나 이상 존재할 수 있고, 이러한 경우는 통사적 결속 조건만으로는 재귀사의 선행사를 확정짓기 어려워진다. Y. Huang(1994)은 한국어처럼 전체 절을 결속영역으로 취하여 결속영역 안에 둘 이상의 잠재적 선행사가 존재할 수 있는 언어는 해당 재귀사와 결속되는 선행사를 선택하기 위해 통사적 조건보다는 추론(inference)이나 문맥, 그리고 인식하는 세계에의 지식(knowledge of the world)과 같은 화용론적 정보에 의존하는 경향이 있다고 주장했다.

반면에, 영어의 경우 화용적 결속 조건은 통사적 결속 조건을 만족시키는 선행사가 없을 때 ‘면제적 결속’을 허용하는 조건으로만 작용하므로 통사적 결속 조건이 화용적 결속 조건보다 우세하다고 할 수 있다. 즉, 영어의 경우 재귀사 해석 시 통사적 결속 조건이 선행하므로, 영어 모국어 화자는 통사적 결속이 가능한 상황에서는 화용론적 정보에 의존하지 않는 경향을 보인다(Demirici 2000, p. 758). 다음의 (8)의 예문에서는 이러한 한국어와 영어의 차이가 확연히 드러난다.

(8) a. 메리_i는 [앤_j이 자기자신_{i>j}을 고발했다고] 생각한다.

b. Mary_i said [that Ann_j denounced herself_{*i/j}].

한국어의 경우, ((8a)에서 보는 바와 같이 ‘메리’와 ‘앤’이 모두 ‘자기자신’의 잠재적 선행사가 될 수 있지만, 문장이 인식자 조건 SELF를 만족시키는 장거리 선행사인 ‘메리’의 생각으로 표현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단거리 선행사보다 장거리 선행사가 화용적으로 더 선호된다고 볼 수 있다. 하지만, (8b)와 같이 영어의 경우는 결속영역 안에 통사적으로 ‘herself’를 결속할 수 있는 선행사 ‘Ann’이 존재하는 한, 장거리 선행사인 ‘Mary’는 적법한 선행사가 될 수 없다.

결론적으로, 영어와 한국어의 화용적 결속현상의 차이를 요약하자면, 영어의 경우 단거리 결속을 허용하는 통사적 결속 조건이 화용적 결속 조건에 선행한다. 다만 통사적 결속이 가능한 선행사를 결속영역 내에서 찾을 수 없고, 문맥적으로 장거리 결속되는 선행사가 인식자 조건을 충족시킬 때는 면제적 결속이 허용되기도 한다. 한편, 한국어의 경우, 성분통어나 결속영역 범주에 관한 제약도 영어보다 더 허용적일 뿐 아니라, 통사적 결속이 가능한 상태에서도 화용적으로 더 선호되는 선행사가 있는 때는 재귀사가 장거리결속 혹은 담화결속이 될 수 있다는 특징을 가지고 있다(Kim and Yoon 2009).

이에 본 논문에서는 재귀사 해석에 있어서 통사적 결속 조건과 화용적 결속 조건에 의존하는 정도에 두 언어 간 차이가 있다는 사실에 기반하여, 한국인 학습자들이 영어 재귀대명사의 선행사를 선택하는 양상을 알아보고자 하였다. 특히 영어의 통사적 결속 조건을 위반한 명사가 해당 재귀사의 선행사로 선호되는 화용적 정보가 제시되어 있고 해당 명사가 인식자 조건을 충족하

는 경우, 한국인 학습자와 영어 화자간의 재귀사 해석 양상에 차이가 나타나는지를 조사하고자 하였다. 본 연구의 근간이 되는 연구문제들은 다음과 같다.

- 1) 한국인 학습자들은 영어 재귀대명사 해석에 있어서 영어의 통사적 결속 조건을 준수하는 명사를 해당 재귀사의 선행사로 해석할 것인가?
- 2) 한국인 학습자들은 문맥 정보가 주어지는 경우 영어 재귀대명사 해석에 있어서 영어의 통사적 결속 조건에 부합하는 명사보다 문맥 정보가 선호하는 명사를 해당 재귀사의 선행사로 해석할 것인가?

3. 연구 방법

3.1 연구 가설

위의 연구 문제들에 대한 각각의 귀무가설과 대립가설은 다음과 같이 제시될 수 있다.

귀무가설 1a) 한국인 EFL 학습자들은 영어 원어민 화자들과 비교해 보았을 때, 영어 재귀대명사의 통사적 결속 조건 중 결속영역 제약조건(TSC와 SSC)을 위반한 명사를 해당 재귀사의 선행사로 해석하는 장거리 결속을 허용하는 경향성에 있어서 차이를 보이지 않을 것이다.

대립가설 1b) 한국인 EFL 학습자들은 영어 원어민 화자들에 비해 영어 재귀대명사의 통사적 결속 조건 중 결속영역 제약조건(TSC와 SSC)을 위반한 명사를 해당 재귀사의 선행사로 해석하는 장거리 결속을 더 허용하는 경향을 보일 것이다.

귀무가설 2a) 한국인 EFL 학습자들은 영어 원어민 화자들과 비교해 보았을 때, 영어 재귀대명사의 성분통어 제약 조건을 위반한 하위통어 명사를 해당 재귀사의 선행사로 해석하는 경향성에 있어서 차이를 보이지 않을 것이다.

대립가설 2b) 한국인 EFL 학습자들은 영어 원어민 화자들에 비해 영어 재귀대명사의 성분통어 제약 조건을 위반한 하위통어 명사를 해당 재귀사의 선행사로 해석하는 경향을 더 많이 보일 것이다.

귀무가설 3a) 한국인 EFL 학습자들은 원어민 화자들과 비교해 보았을 때, 영어의 통사적 결속 조건을 위반한 명사가 해당 재귀사의 선행사로 선호되는 문맥 정보가 제시된 경우, 영어 재귀대명사 해석에 있어서 영어의 통사적 결속 조건보다 화용적 문맥 정보에 의존하여 선행사를 판단하는 경향성에 있어 차이를 보이지 않을 것이다.

대립가설 3b) 한국인 EFL 학습자들은 영어의 통사적 결속 조건을 위반한 명사가 해당 재귀사의 선행사로 선호되는 문맥 정보가 제시된 경우, 영어 재귀대명사 해석에 있어서 원어민 화자들에 비해 영어의 통사적 결속 조건보다 화용적 문맥 정보에 의존하여 선행사를 판단하는 경향이 높을 것이다.

3.2 연구 참여자

본 연구는 실험집단으로 한국어를 모국어로 하는 대학생 67명(평균 연령: 24세; 영어 학습기간: 평균 15년)과 비교집단으로 영어를 모국어로 하는 원어민 화자 12명(평균 연령: 31세; 연령 범위: 18~41세; 한국 평균 거주기간: 9년)을 대상으로 실험을 진행하였다².

3.3 연구 도구

3.3.1 통사적 결속: 선행사 결속가능 수용성 판단과제

실험에서는 학습자들이 문장에 제시된 재귀대명사의 잠재적 선행사들 중 적절한 선행사를 판별하도록 설계된 두 종류의 과제를 병합한 선행사 결속가능 수용성 판단과제(acceptability judgment task based on antecedent resolution)를 실시하였다. 실험참가자들은 먼저 아래 (9)과 같이 문장 내 제시된 재귀사의 선행사를 판단하는 선행사 판단과제(antecedent resolution task)를 실시하여, (9a)와 (9b)의 명사가 재귀사의 선행사로 적절하다고 판단한 경우에는 O에 표시하고, 적절하지 않으면 X에 표시하도록 실험자의 안내를 받았다.

(9) John thought that Tom pinched himself.

	0	100
(a) himself = John	O / X	<input type="text"/>
(b) himself = Tom	O / X	<input type="text"/>

이 때, 실험 참가자(학습자)들이 상위절의 잠재적 선행사와 종속절의 잠재적 선행사가 서로의 상대적인 영향이 최소화된 상황에서 해당 재귀사의 선행사가 될 수 있는 가능성을 각각 판

² 학습자가 명시적인 문법 지도 없이 모국어와는 다른 영어 재귀사의 결속 조건을 준수하여 영어 재귀사를 해석할 수 있는지 알고자 하는 연구이므로, 설문지를 통하여 영어권 국가에서 2년 이상 거주한 경험이 있는 학습자나 영어 재귀사의 결속 조건을 명시적으로 배운 학습자는 연구 참여자에서 제외하였다.

별할 수 있도록 (9a), (9b)와 같이 각각의 잠재적 선행사들에 대한 문항을 독립적으로 구성하였다. 다음으로, 학습자들이 각 항목에 제시된 잠재적 선행사가 해당 재귀사의 적절한 선행사라고 판단하여 0에 표시를 한 경우에만 해당 선행사가 재귀사의 선행사로 얼마나 자연스러운지 수용성 정도를 선 위에 표시하도록 하였다.³

실험에 사용된 각 문장 유형들은 표 1에 나타난 결속영역 제약 관련 문장들과 표 2에 나타난 성분통어 제약 관련 문장들로 구성되어 있다.

표 1. 결속 영역 제약 조건 실험 문장

문장 유형	인식자 조건	실험 문장
(10a) 결속 영역 중립 문장	source	John said that Tom shot himself with a gun.
(10b) 장거리 결속 편향 문장	source	Mary said that Peter shot herself with a gun.
(10c) 단거리 결속 편향 문장	source	Jane said that Bob shot himself with a gun.
(11a) 결속 영역 중립 문장	self	John thought that Tom pinched himself.
(11b) 장거리 결속 편향 문장	self	Mary thought that Peter pinched herself.
(11c) 단거리 결속 편향 문장	self	Jane thought that Bob pinched himself.
(12a) 결속 영역 중립 문장	pivot	John heard that Tom came to paint himself.
(12b) 장거리 결속 편향 문장	pivot	Peter heard that Mary came to paint himself.
(12c) 단거리 결속 편향 문장	pivot	Jane heard that Bob came to paint himself.

(음영 표시된 칸은 비문법적인 문장임)

결속영역 제약과 관련된 문장들은 복문 정형절 문장을 기준으로 하여, 재귀사와 주절과 종속절에 나타난 두 개의 잠재적 선행사의 성과 수를 모두 일치시켜 장거리 결속과 단거리 결속에 의한 해석이 모두 가능하도록 한 ‘결속 영역 중립 문장(10a, 11a, 12a)’, 주절에 나타난 명사와 재귀사의 성별을 일치시켜 장거리 결속 쪽으로 해석을 의도한 ‘장거리 결속 편향⁴ 문장(10b, 11b, 12b)’, 그리고 종속절에 나타난 명사와 재귀사의 성별을 일치시켜 단거리 결속만 가능하도록 설계한 ‘단거리 결속 편향 문장(10c, 11c, 12c)’의 세 가지 종류로 문장 유형을 구성하였다.⁵ 중립 문장과 장거리 결속 편향 문장에 대해 각각 9개의 토큰 문장을, 단거리 결속 편향 문장은 세 개의 토큰 문장을 설계⁶하여 총 21개의 문장을 사용하였다. 한편, 성분통어 제약 조

³ 이 실험방법은 강도추정검사(Magnitude Estimation, ME; Schütze and Sprouse 2013)를 응용한 방법으로, 주어진 선 위에 0과 50 그리고 100의 숫자를 제시하여 학습자가 가능하다고 판단한 잠재적 선행사가 해당 재귀사의 선행사로 자연스럽다고 생각하는 정도만큼 100에 가까운 지점에 표시하도록 하였다. 선행사 수용성 판단 과제로 제시된 선의 길이는 총 80mm이며, 선의 시작 지점부터 학습자가 선 위에 표시한 지점까지를 mm 단위로 재어 z 점수로 변환하였다.

⁴ ‘편향’이라는 용어는 한쪽 선행사 해석을 불가능하게 만들어 다른 선행사의 가능성만을 편향적으로 지원하는 문장을 지칭하는 것으로 선행연구(유기운 2016)에서 언급된 용어를 받아 사용하기로 한다.

⁵ 표 1의 결속영역 제약 조건 실험 문장들이 인식자 종류에 따라 달라질 가능성을 두고 문장들을 세 종류의 인식자 조건, 즉 self, source, pivot에 따라 분류하였으나, 인식자 조건에 따른 유의미한 결과가 나타나지는 않았다.

⁶ 단거리 결속 편향 문장의 수는 본래 타문장들과 같이 9개로 설정하였으나, 파일럿 실험에서 모든

건에 따른 문장유형은 표 2와 같다.

표 2. 성분통어 제약조건 실험 문장

문장 유형	주어의 의미역	실험 문장
(13a) 성분통어 중립 문장	experiencer	Mary's sister trusted herself.
(13b) 성분통어 편향 문장	experiencer	Mary's brother trusted himself.
(13c) sub-commanding 유정 명사 편향문장	experiencer	Jane's brother trusted herself.
(13d) sub-commanding 무정 명사 편향문장	experiencer	Peter's pride satisfied himself.
(14a) 성분통어 중립 문장	agent	Tom's father blamed himself.
(14b) 성분통어 편향문장	agent	Peter's sister blamed herself.
(14c) sub-commanding 유정 명사 편향문장	agent	Mary's brother blamed herself.
(14d) sub-commanding 무정 명사 편향문장	agent	Jane's pride saved herself.

(음영 표시된 칸은 비문법적인 문장임.)

표 2에 제시된 성분통어 관련 실험 문장들은 모두 단일문 정형질 문장으로 영어 재귀사인 'himself' 혹은 'herself'가 목적이 자리에 나타난 문장이며, 해당 재귀사와 수가 일치하는 잠재적 선행사들이 한정사 '-s'를 이용한 소유격(-s genitive)의 구조로 명시주어 자리에 나타난다. 구체적으로, 문장에 나타난 두 개의 잠재적 선행사와 재귀사가 성과 수에서 일치하는 '성분통어 중립 문장(13a, 14a)', 재귀사를 성분통어하는 명사만 재귀사와 성/수가 일치하는 '성분통어 편향 문장(13b, 14b)', 그리고 재귀사를 성분통어하지 않는, 즉 하위통어 명사만 재귀사와 성/수가 일치하도록 설정한 — 영어에서는 비문법적이나 한국어에서는 명사구의 핵이 무정성 [-animate]을 지닐 때만 허용되는 — '하위통어 편향 문장(13c, 13d, 14c, 14d)'을 설계하였다. 이 경우는 명사구의 핵이 유정성 [+animate]을 지닌 (13c)와 (14c)의 문장과 무정성 [-animate]을 지닌 (13d)와 (14d)의 문장을 구분하여 설정하였다.⁷ 중립 문장과 비성분통어 편향 문장 유형은 각각 6개의 토큰 문장을, 성분통어 편향 문장은 2개의 토큰을 선정하여⁸ 총 20개의 문장을 성분통어 관련한 실험문장으로 설정하였다. 이러한 실험문장을 기반으로 통사적 결속 관련 실험에 사용된 문항은 결속영역 제약 조건 관련 21개, 성분통어 제약 관련 20개 문항, 필러 문항 14개⁹로 총 55문항으로 구성되었다.

참가자가 올바른 반응을 보였으므로, 과제수행시간을 줄이기 위해 대표적인 토큰만 3개 유지하였다.

⁷ 표 2의 성분통어 제약 조건 실험 문장을 주어의 의미역에 따라 달라질 가능성을 두고 주어의 의미역을 경험자(experiencer)와 행위자(agent)로 나누어 분류하였으나, 결과상으로 두 의미역 사이에 유의미한 차이는 없었다.

⁸ 성분통어편향 문항의 경우도 각주 6과 같은 이유로 다른 문항 타입과 같은 수의 토큰으로 설계하였으나 파일럿 실험 이후 수를 줄여 사용하였다.

⁹ 필러 문항은 재귀사와 유사한 구조의 선행사 판단이 가능한 문장으로 구성하기 위해 재귀사 대신 대명사를 사용하여 선행사를 판단하게 했으며, 정문과 비문의 비율이 전반적인 반응 예상수와 균형을 이루도록 설계되었다. 목표 문항과 필러 문항으로 사용된 문장들은 <부록>에 제시되어있다.

3.3.2 화용적 결속: 이야기 기반 진리값 판단 과제

다음으로 특정 명사가 해당 재귀사를 지칭하도록 편향된 문맥이 제시된 경우 학습자들이 화용적 지식을 바탕으로 영어 재귀대명사의 통사적 결속 조건을 얼마나 준수하는지 알아보기 위해 한국어로 2문장에서 5문장으로 구성된 한 단락의 이야기 지문을 읽고 제시된 영어 문장이 지문의 내용과 일치하는지 혹은 일치하지 않는지 판단하는 ‘이야기를 바탕으로 한 진리값 판단 과제(truth value judgment based on stories)’를 실시하였다. 과제 내의 실험 문장은 앞선 선행사 판단 과제에서 제시된 실험 문장 중 결속영역과 성분통어와 관련한 ‘중립문장’에 해당하는 문장들을 사용하였으며, 지문을 통해 한쪽 선행사에만 결속가능성이 편향된 문맥정보를 제공하였다. 또한 각 문항마다 이야기가 지지하는 선행사는 이야기상에서 인식자조건을 충족시켜 화용적 결속조건을 만족시키도록 구성하였다. 본 과제의 예시문항은 (15)에 나타나있다.

(15) 이야기를 바탕으로 한 진리값 판단 과제 예시 문항

a. 이야기: 컴퓨터로 게임을 하느라 밤을 새버린 Bill은 수업 시간 내내 잠이 와서 제대로 앉아 있을 수가 없었다. 결국 꾸벅꾸벅 졸기 시작한 Bill은 수업을 하시던 수학 선생님이 자신의 이름을 부르는 것도 듣지 못한 채 계속 고개를 숙이고 있었다. 이에 Bill의 뒤에 앉아 있던 Mary가 Bill의 팔을 세계 꼬집어 깨웠다. 그런데 Bill은 자신의 옆에 앉아 있는 James가 자신의 팔을 꼬집었다고 생각해 James를 흘겨보았다.

b. Bill thought that James pinched himself. (T / F)

위의 예에서 보이는 문항의 지문 (15a)는 (15b)에 제시된 문장 내에서 인식자조건인 SELF와 PIVOT을 동시에 충족시키고 있지만 결속영역 제약 조건을 위반하는 장거리 선행사 Bill에 결속가능성이 편향된 문맥 정보를 제시한 경우이다. 만일, 학습자들이 (15a)의 지문의 내용을 바탕으로 (15b)의 문장을 읽고 T를 선택했다면 인식자조건을 만족시키며 화용적으로 선호되는 잠재적 선행사이지만 영어의 통사적 결속조건인 시제문 조건과 명시주어 조건을 위반한 장거리 선행사인 Bill과 재귀대명사인 himself가 결속 가능하다고 본 것이다. 반대로 학습자들이 F를 선택했다면 영어의 통사적 결속영역 제약 조건을 준수하여 James를 선행사로 판단한 것으로 볼 수 있다. 이와 같은 논리로 본 실험에서는 결속영역 관련 두 종류의 지문(장거리 결속 편향지문, 단거리 결속 편향지문)과 성분통어 관련 두 종류의 지문(하위통어 명사 편향지문, 성분통어 명사 편향지문)의 총 4가지 지문 유형을 사용하였으며, 실험문항 수는 결속영역 관련 문항 9개(장거리 선행사 편향지문 5개, 단거리 선행사 편향지문 4개)와 성분통어 관련 문항 6개(하위통어 선행사 편향지문 4개, 성분통어 선행사 편향지문 2개)와 필러 문항 6개가 제시되어 총 21문항으로 구성하였다.

4. 연구 결과 및 논의

4.1 통사적 결속 조건: 선행사 결속 가능 수용성 판단 검사에 대한 결과

4.1.1. 결속영역 제약조건과 관련한 영어 재귀사 해석 양상

강도추정 기법을 응용한 선행사 결속가능 수용성 판단검사에 대한 실험참가자들의 반응에 기반한 통사적 결속 조건에 대한 연구 결과를 요약해보면 다음과 같다.¹⁰

- i) 한국인 학습자들은 결속영역 중립 문장에 대해 영어 원어인 화자들에 비해 단거리결속 선행사에 더 적은 비율의 결속 가능성을 부여한 반면, 장거리결속 선행사에 더 많은 비율의 결속가능성을 부여하였다. 교차검정 결과, 중립문장에서 한국인 학습자들은 총 응답 중 16.8%가 장거리 결속을 허용하면서, 선행사 선택 양상에 있어서 비교 집단인 영어 화자들과 유의미한 차이를 보였다($p < 0.05$, $df = 3$, $X^2 = 17.452$).¹¹
- ii) 한편, 한국인 학습자들의 경우, 장거리 결속 편향 문항에서는 장거리 결속을 허용하는 비율이 더 높았다. <그림 1>에서와 같이 장거리 결속 편향 문항에서는 영어 화자들이 장거리결속 선행사를 대부분 ‘대상없음’으로 인정하지 않고 4.6%만 인정한 반면, 한국인 학습자들은 총 응답의 34.0%가 ‘장-단거리 둘 다 가능(4.7%)’ 또는 ‘장거리 결속 선행사(29.3%)’를 선택하여 장거리 선행사를 허용하였다($p < 0.05$, $df = 3$, $X^2 = 63.405$; Cramer’s $V = .301$).

이와 같은 반응에서 볼 때, 영어 화자들은 문장의 유형에 상관없이 영어의 통사적 결속 조건에 따라 응답하는 경향이 높았지만, 한국인 학습자들의 경우에는 중립 문장에 비하여 모국어의 결속 규칙과 영어의 통사적 결속 규칙이 대립하는 문장 유형에서 장거리 결속을 허용하는 비율이 높아진 것을 알 수 있다.

¹⁰ 실험결과는 응답 빈도와 백분율로 제시하였으며 교차검정을 통해 유의수준 0.05를 기준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있는지 알고자 하였다. 교차검정을 위한 항목은 ‘①단거리 결속(단거리 결속 명사 선택) ②장거리 결속(장거리 결속 명사 선택) ③둘 다 가능 ④대상 없음(결속 가능한 선행사 없음)’ 네 가지로 구분하였다. 더불어 교차검정의 결과로 제시된 연관성의 강도를 파악하기 위하여 Cramer’s V 값을 산출하였다. Cramer’s V 값은 교차표에서 작은 값의 크기를 기준으로 효과 크기를 평가한다. 이 때, 작은 값의 크기가 3인 경우, 0.07~0.21은 중간 정도의 효과 크기를 지니며 0.35 이상은 큰 효과 크기를 지닌다고 해석할 수 있다.

¹¹ 하지만 한국인 학습자들의 총 응답 중 82.6%가 단거리 결속되는 명사만을 선행사로 선택하였으며 효과 크기(Cramer’s $V = .157$)가 크지 않은 것을 보면, 학습자들은 대체적으로 영어의 결속영역 제약 조건을 알고 있으며, 문맥적 편향이 없는 문장에서는 이를 준수하여 재귀사를 해석하는 경향이 높다고 해석할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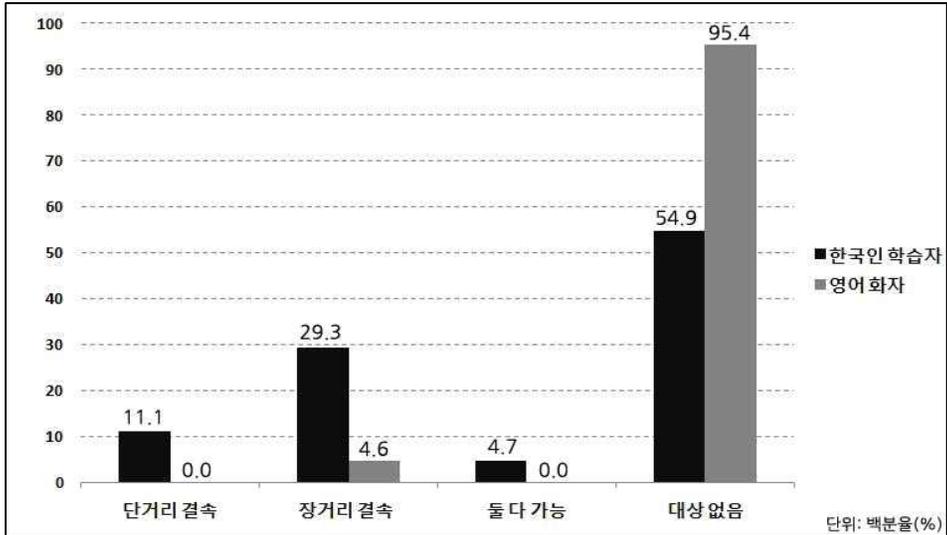


그림 1. 원어민과 한국인 학습자의 장거리 결속 편향 문항 비교반응

이와 같은 한국인 학습자와 영어 화자 간의 재귀사 해석 양상에서의 차이는 크게 두 가지에서 기인한 것으로 추측할 수 있다. 첫째로, Manzini와 Wexler(1987)와 Yang(1983)의 언어에 따라 다르게 구현되는 지배 범주 매개변인에 따르면, 영어의 결속영역에 대한 지식이 불안정한 학습자의 경우 모국어인 한국어의 결속영역 매개변인의 영향으로 장거리 결속을 허용했을 가능성이 있다. 또한, Y. Huang(1994)에 따르면 영어는 재귀사의 해석에 있어 통사적 제약을 엄격히 준수하는 통사적 언어임에 비하여, 한국어는 통사적 제약과 문맥적 정보가 상충할 때 문맥 정보가 재귀사의 선행사 선택에 더 많은 영향을 주는 화용적 언어이므로, 학습자들 - 특히 영어의 통사적 결속조건에 대한 지식이 불안정한 학습자일 경우 더더욱 - 이 영어 재귀사를 해석할 때 통사적 결속 조건을 엄격히 준수하기보다는, 재귀사와 성별이 일치하는 잠재적 선행사가 있을 경우, 즉 문맥상 더 선호되는 명사가 있을 경우에는 화용적 조건에 의존했을 가능성이 있다.

이를 종합하면, 결속 영역 중립 문장에서 한국인 학습자들은 대체로 영어의 결속영역 제약 조건을 알고 있으며, 단거리 결속 명사를 선행사로 해석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하지만 한국인 학습자들은 영어 화자에 비해 영어의 시제문 조건과 명시적 주어 조건을 위반한 장거리 결속 명사를 해당 재귀사의 선행사로 해석하는 경향이 있었다고 할 수 있다. 이를 통해 보았을 때, 본 연구에서 나타난 결과는 결속영역 제약조건과 관련한 귀무가설1a를 기각하는 동시에 대립가설 1b를 지지한다고 볼 수 있다.

4.1.2. 성분통어 제약조건과 관련한 영어 재귀사 해석 양상

성분통어 제약조건과 관련해서는 다음과 같은 결과가 나타났다.

i) 먼저, 성분통어 중립 문장에서 한국인 학습자들은 총 응답 중 12.6%가 재귀사를 성분통어하지 않는 명사를 선행사로 선택하였으나, 영어 화자는 모든 반응에서 성분통어 명사만이 재귀사의 선행사가 될 수 있다고 답하면서, 두 집단 간 재귀사 해석 양상에 유의미한 차이를 보였다($p < 0.05$, $df = 3$, $X^2 = 10.636$). 하지만 한국인 학습자들의 총 응답 중 86.9%가 성분통어 명사만을 선행사로 선택하였으며 효과 크기(Cramer's $V = .151$)가 크지 않았다는 점을 볼 때, 한국인 학습자들은 대체로 영어의 성분통어 제약 조건을 알고 있으며, 문맥적 편향이 없는 문장에서는 이를 준수하는 경향이 높다고 해석할 수 있다. 성분통어 중립 문장에 대한 반응은 그림 2에 나타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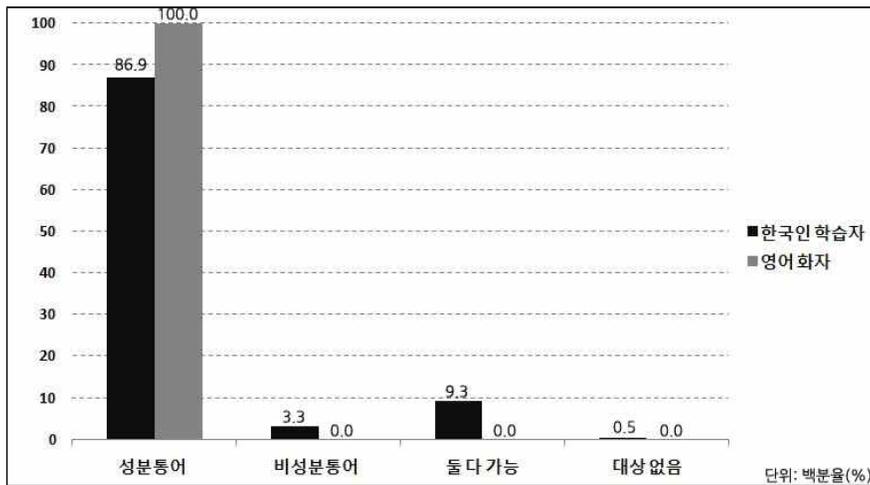


그림 2. 성분통어 중립 문장에 대한 원어민과 한국인 학습자들의 반응

ii) 그러나, 한국어와 영어의 결속조건이 대립하는 하위통어 편향 문장 중 주어 명사구의 핵이 부정명사인 경우 한국인 학습자들은 총 응답 중 85.6%가 비성분통어(하위통어) 명사가 재귀사의 선행사가 될 수 있다고 응답하였으며, 그 중 80.1%는 비성분통어 명사만을 해당 재귀사의 선행사로 선택하였으나 영어 화자들은 22.2%만이 비성분통어 명사를 선행사로 인정하였다($p < .05$, $df = 3$, $X^2 = 137.915$; Cramer's $V = .539$).

이 때, 하위통어 편향 문장 중 주어 명사구의 핵이 긍정 명사일 때는 학습자들의 총 응답 중 33.8%만이 비성분통어 명사를 재귀사의 선행사로 선택하였다. 즉, 주어 명사구의 핵이 긍정

명사인 문장보다 부정 명사인 문장에서 비성분통어 명사를 선행사로 허용하는 비율이 높았음을 확인할 수 있다.

이와 같은 한국인 학습자와 영어 화자 간의 재귀사 해석 양상에서의 차이는 영어의 결속 조건에 대한 지식이 아직 불안정한 학습자의 경우, 재귀사와 성별이 일치하는 비성분통어 명사가 문맥상 더 자연스럽게 해석되므로, 통사적 제약조건을 준수하기보다는 문맥에 의존하여 응답했을 가능성으로 설명할 수 있다. 특히, 학습자들의 총 응답 중 하위통어 부정 명사 편향 문장에서 비성분통어 명사를 선행사로 해석한 비율이 높았다는 것은, 모국어의 결속 조건에 영향을 받았을 것이라 추측할 수 있다.

이를 종합하면, 성분통어 중립 문장에서 영어 화자의 경우 문장 유형에 상관없이 성분통어 명사만을 재귀사의 선행사로 허용하는 경향이 있는 반면, 학습자들은 영어와 모국어의 결속 규칙이 대립하는 문장 유형에서는 영어의 통사적 결속 조건을 준수하기보다는 모국어의 결속 규칙에 따르거나 문맥적으로 더 자연스러운 명사를 선행사로 선택하는 비율이 높아졌다. 이 결과는 본 연구의 귀무가설 2a를 기각하는 동시에 대립가설 2b를 지지한다고 할 수 있다.

4.3. 영어의 화용적 결속 조건: 진리값 판단과제 결과

4.3.1. 문맥 정보에 따른 영어 재귀사 해석 양상

화용적 결속을 알아보기 위해 이야기 지문을 맥락으로 제공한 진리값 판단과제에서 나타난 결과를 요약해보면 다음과 같다.

- i) 결속영역 제약 조건에 대한 반응은 <그림 3>에 나타나 있듯이, 한국인 학습자의 경우 총 응답 중 단거리 결속 편향 지문에서 단거리 결속 명사를 선행사로 선택한 비율이 96.6%였으나, 장거리 결속 편향 지문에서는 단거리 결속 명사를 선행사로 해석한 비율이 83.9%로 낮아지면서 지문의 유형에 따라 선행사 선택 양상에 유의미한 차이를 보였다($p < .05$, $df = 1$, $X^2 = 25.915$). 그러나 영어 화자의 경우에는 문맥 정보에 상관없이 총 응답의 95% 이상이 단거리 결속 명사만을 선행사로 해석하면서, 지문의 유형에 따른 선행사 선택 양상에 있어 유의미한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다($p > .05$, $df = 1$, $X^2 = 2.469$). 이 결과로 결속 영역 제약 조건과 관련하여 영어의 통사적 결속 조건을 위반한 명사가 해당 재귀사의 선행사로 선호되는 문맥 정보가 제시된 경우, 학습자들은 비교 집단인 영어 원어민 화자들에 비해 문맥 정보에는 부합하나 통사적 결속 조건을 위반한 장거리 결속 명사를 해당 재귀사의 선행사로 해석하는 경향이 있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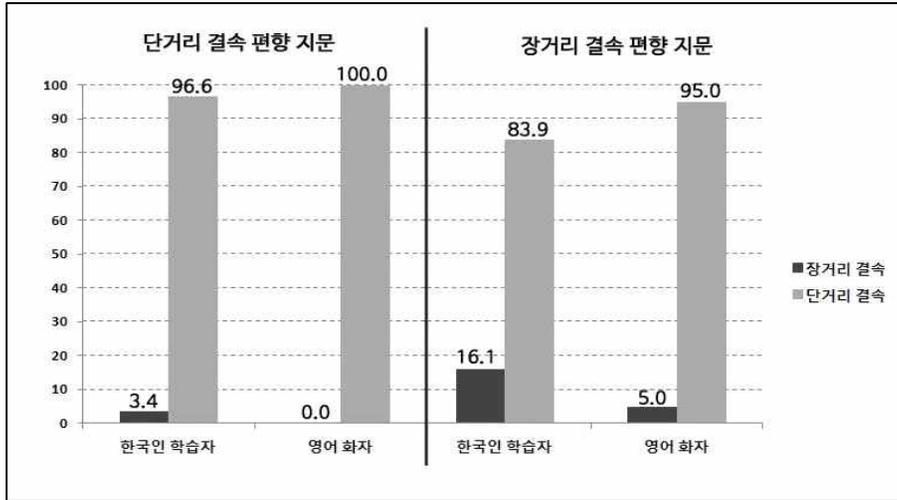


그림 3. 원어민과 한국어 화자의 결속영역에 따른 화용적 결속 허용양상

ii) 성분통어 제약 조건과 관련하여서는, 학습자들은 대체로 문맥 정보에 상관없이 재귀사를 성분통어하는 명사를 해당 재귀사의 선행사로 해석하는 경향을 보였다. 총 응답 중 성분통어 명사 편향 지문에서 재귀사를 성분통어하는 명사를 선행사로 해석한 비율은 95.5%였으며, 비성분통어 명사 편향 지문에서는 성분통어 명사를 선행사로 선택한 비율이 93.7%로 나타나면서, 지문의 유형에 따른 선행사 선택 양상에서의 차이는 유의미하지 않았다($p > .05$, $df = 1$, $X^2 = .576$). 더불어, 성분통어 명사 편향 지문뿐 아니라 비성분통어 명사 편향 지문에서 한국인 학습자와 영어 화자 간의 선행사 선택 양상에서의 차이 역시 유의미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p > .05$, $df = 1$, $X^2 = 3.218$).

이처럼 결속영역과 관련한 문항과 성분통어와 관련한 문항에서 서로 다른 결과가 나타난 것은, 결속영역 제약조건의 경우에는 각 언어마다 적용되는 결속영역의 범위가 다르지만, 성분통어 제약조건은 모든 언어에서 나타나는 보편적인 법칙이기 때문인 것으로 추측할 수 있다. 즉, Manzini와 Wexler(1987)에 따르면 결속영역은 매개변인에 따라 언어마다 다르게 구현되는 규칙이지만, 재귀사를 성분통어하는 명사가 해당 재귀사와 결속될 수 있다는 성분통어 제약 조건은 대부분의 언어에서 나타나는 보편적인 법칙이다(Eckman 1996, Hamilton 1998). 따라서 결속영역 제약 조건과 관련한 문항에 비하여, 성분통어 제약 조건과 관련한 문항에서는 재귀사의 선행사를 선택할 때 문맥에 의존하는 정도가 낮았을 것이라 해석할 수 있다.

학습자들이 문맥 정보에는 부합하나 통사적 결속 조건을 위반한 명사를 해당 재귀사의 선행사로 해석하는 경향이 있었다는 점에서, 결속영역과 관련한 본 연구의 결과는 부분적으로 귀무가설3a를 기각하며 대립가설 3b를 지지한다고 할 수 있다. 한편, 성분통어 제약조건과 관련한

문항에서는 한국인 학습자와 영어 화자 모두 문맥의 영향을 받기보다는 대체로 영어의 통사적 결속 조건에 부합하는 명사를 선행사로 해석하는 경향이 높은 결과는 본 연구의 귀무가설 3a를 지지하는 동시 대립가설 3b를 기각한다고 할 수 있다.

5. 결론

본 연구는 영어의 통사적 결속 조건과 화용적 결속 조건과 관련하여 한국인 대학생 학습자들의 영어 재귀사 해석 양상을 알아보고자 하였다. 선행사 판단 및 선행사 수용성 판단 과제와 이야기를 통한 문맥을 바탕으로 하는 진리값 판단 과제를 실시한 결과, 학습자들이 영어 화자들에 비해 영어의 결속 영역과 성분통어 제약 조건을 위반한 명사를 해당 재귀사의 선행사로 해석하는 경향을 더 많이 보였다. 이는 특히 성분통어 제약조건과 관련한 문항에서보다 결속영역 제약조건과 관련한 문항에서 두드러졌는데, 성분통어 제약조건은 범언어적인 규칙임에 비하여 결속영역은 각 언어마다 적용되는 범위가 다르기 때문인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그러나 성분통어 관련 문항에서는 주어 명사구가 부정 명사일 때 학습자들이 비성분통어 명사를 해당 재귀사의 선행사로 해석하는 비율이 높은 것을 보면, 해당 문장에서 비성분통어 명사가 문맥상 더 자연스럽게 해석될 뿐 아니라, 주어 명사구의 자질에 따라 하위통어를 허용하는 한국어의 영향 때문인 것으로 추측된다.

이와 같은 연구 결과가 영어교육 관련 분야에 시사하는 점은 다음과 같다. 첫째, 영어의 경우 한국어보다 결속영역이 제한적이기 때문에, 본 실험에서 사용한 장거리 결속 편향 문장과 같이 모국어에서는 가능하지만 영어에서는 비문법적인 문장을 예로 들어 결속영역과 관련한 규칙을 명시적으로 지도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할 수 있다. 더불어, 영어 재귀사의 성분통어 제약조건과 관련하여, 본 실험에서 사용한 하위통어 편향 문장과 같이, 모국어에서는 가능하지만 영어에서는 비문법적인 문장을 예로 들어 학습자들에게 영어의 통사적 결속 규칙을 명시적으로 가르치는 것이 필요하다고 할 수 있다.

마지막으로, 본 연구는 재귀사가 포함된 문장을 제시하고 문장 내에서 선행사를 파악하는 과제를 통한 학습자들의 영어 재귀사 해석 양상을 조사한 연구이지만, 학습자들이 발화나 작문상에서 재귀사를 사용하도록 유도하는 후속 과제가 설계되어 결과를 비교할 수 있다면 학습자들의 재귀사 이해와 사용 양상에 대한 총체적인 논의가 가능할 것이다. 또한, 추후 연구 설계를 위해서는 본 연구에서 논의하지 않은 학습자들의 능숙도 변인을 고려하여 능숙도에 따른 차이점을 논하는 것이 필요하며, 라틴스퀘어 디자인을 활용하여 학습자들이 실험문장 판단에 있어 같은 동사가 사용된 비슷한 문장에 노출된 효과에서 오는 영향력을 최소화하는 실험조치 또한 적절히 적용되어야 할 것이다.

참고문헌

- 김희숙, 문은주, 여도수(Kim, H., E. Moon and D. Yeo). 2002. 외국어 습득에서 하위집합 우선 원리와 보편문법: 영어 학습자의 재귀대명사 습득을 중심으로(The Subset Principle and UG in L2 acquisition: The acquisition of reflexives by Korean students learning English). 《공주영상정보대학 논문집》 (*Articles in Kongju Multimedia University*), 153-170.
- 박희문(Park, H.). 1994. 재귀대명사의 인식자 결속(Logophoric Binding)에 관한 연구. 《언어 연구》 (*Linguistic Research*) 12, 53-74.
- 신봉수(Shin, B.). 2006. 한국인의 제2언어 습득에 있어서 결속 매개변항에 관한 연구: 영어의 재귀사를 중심으로. 《새한영어영문학》 (*The New Korean Journal of English Language and Literature*) 48(4), 173-198.
- 유기윤, 김수연(Yoo, K. and S.-Y. Kim). 2015. 한국인 EFL 학습자 영어재귀사 습득에 나타난 '성분통어조건' 구현 양상(The patterns of the acquisition of English reflexives by Korean EFL learners in terms of c-command). 《영어학》 (*Korean Journal of English Language and Linguistics*) 15-4, 889-916.
- 유기윤(Yoo, K.). 2016. 『한국인 EFL 학습자들의 영어 재귀사 습득연구: 문맥에 따른 재귀사 해석양상을 중심으로』 (*Korean EFL Learners' Acquisition of English Reflexives*). 미출간 박사학위 논문, 세종대학교: 서울.
- 최정아, 이예식(Choi, J.-A. and Y.-S. Lee). 2016. 한국인 영어학습자의 재귀대명사 습득: 부분집합 원리 위반을 중심으로(The acquisition of reflexive pronouns by Korean EFL learners: Focus on their violation of subset principle). 《언어학》 (*The Linguistic Association of Korea Journal*) 24(4), 395-411.
- 윤만근(Yoon, M. K.). 2001. 『지배결속 이론』 (*Government and Binding Theory*). 서울: 경진문화사.
- 윤미영(Yoon, M.). 2003. 『한국인 학습자들의 영어 재귀사 습득에 관한 연구』 (*A Study of the Acquisition of English Reflexives by Korean EFL Learners*). 미출간 박사학위 논문, 부산대학교: 부산.
- 최정아(Choi, J.). 2016. 『한국인 영어학습자의 습득과정에 대한 보편문법적 접근: 재귀대명사 현상을 중심으로』 (*A Universal Grammar Approach to the Language Acquisition Process of Korean EFL Learners: With Reference to English Reflexive Pronouns*). 미출간 박사학위 논문, 경북대학교: 대구.
- Felser, C., M. Sato and N. Bertenshaw. 2009. The on-line application of binding principle A in English as a second language. *Bilingualism: Language and Cognition* 12(4), 485-502.

- Chomsky, N. 1980. On binding. *Linguistic Inquiry* 11, 1–46.
- Chomsky, N. 1981. *Lectures on Government and Binding*. Dordrecht, Holland: Foris Publications.
- Cole, P., G. Hermon and L.-M. Sung. 1990. Principles and parameters of long-distance reflexives. *Linguistic Inquiry* 21(1), 1–22.
- Demirci, M. 2000. Reflexive interpretation by Turkish learners of English. *Second Language Research* 16(4), 325–353.
- Eckman, F. R. 1996. On evaluating arguments for special nativism in second language acquisition theory. *Second Language Research* 12(4), 398–419.
- Pollard, C. and I. A. Sag. 1992. Anaphors in English and the scope of binding theory. *Linguistic Inquiry* 23(2), 261–303.
- Sells, P. 1987. Aspects of logophoricity. *Linguistic Inquiry* 18(3), 445–479.
- Hamilton, R. 1996. Against underdetermined reflexive binding. *Second Language Research* 12(4), 420–446.
- Huang, Y. 1994. *The Syntax and Pragmatics of Anaphora*. Cambridge: Cambridge University Press.
- Huang, C.-T. J. and C.-S. L. Liu. 2001. Logophoricity, attitudes, and ziji at the interface. In P. Cole, G. Hermon and C.-T. J. Huang, Eds., *Syntax and Semantics 33: Long Distance Reflexives*, 141–195. San Diego: Academic Press.
- Kim, J.-H. and J. H. Yoon. 2009. Long-distance bound local anaphors in Korean: An empirical study of the Korean anaphor *caki-casin*. *Lingua* 119, 733–755.
- Manzini, R. and K. Wexler. 1987. Parameters, binding theory, and learnability. *Linguistic Inquiry* 18, 413–444.
- Schütze, C. and J. Sprouse. 2013. Judgement data. In R. Podesva and D. Sharma, eds., *Research Methods in Linguistics*, 27–50. Cambridge: Cambridge University Press.
- Tang, C.-C. J. 1989. Chinese reflexives. *Natural Language & Linguistic Theory* 7(1), 93–121.
- Yang, D.-W. 1983. The extended binding theory of anaphors. *Language Research* 19, 169–192.

예시 언어: 영어

적용가능 언어: 영어

적용가능 수준: 대학생, 성인

안수진 (대학원생)
한국교원대학교 영어교육과
충청북도 청주시 흥덕구 강내면 태성탑연로 250
E-mail: engteacherknue@gmail.com

김지혜 (교수)
한국교원대학교 영어교육과
충청북도 청주시 흥덕구 강내면 태성탑연로 250
Tel: 043) 230-3553
E-mail: jkim@knue.ac.kr

접수 일자: 2019년 5월 10일
수정 일자: 2019년 6월 10일
게재확정 일자: 2019년 6월 16일

부록

1. 결속 영역 제약 조건과 관련한 실험 문장

문장 유형	인식자 조건	실험 문장
(1a) 중립 문장	source	John said that Tom shot himself with a gun. Tom argued that John hit himself.
(1b) 장거리 결속 편향 문장	source	Mary said that Peter shot herself with a gun. Peter argued that Mary hit himself.
(1c) 단거리 결속 편향 문장	source	Jane said that Bob shot himself with a gun. Bob argued that Jane hit herself.
(2a) 중립 문장	self	John thought that Tom pinched himself. John believed that John blamed himself.
(2b) 장거리 결속 편향 문장	self	Mary thought that Peter pinched herself. Mary believed that Peter blamed herself.
(2c) 단거리 결속	self	Jane thought that Bob pinched himself. Bob believed that Jane blamed herself.
(3a) 중립 문장	pivot	John heard that Tom came to paint himself. Tom read that John came to protect himself.
(3b) 장거리 결속 편향 문장	pivot	Peter heard that Mary came to paint himself. Mary read that Peter came to protect herself.
(3c) 단거리 결속 편향 문장	pivot	Jane heard that Bob came to paint himself. Bob read that Mary came to protect herself.

(음영 표시된 칸은 비문법적인 문장)

2. 성분통어 제약 조건과 관련한 실험 문장

문장 유형	주어의 의미역	실험 문장
(1a) 중립 문장	experiencer	Mary's sister trusted herself. John's father was proud of himself.
(1b) 성분통어 편향 문장	experiencer	Mary's brother trusted himself. Peter's sister was proud of herself.
(1c) sub-commanding 긍정 명사 편향 문장	experiencer	Jane's brother trusted herself. Bob's mother was proud of himself.
(1d) sub-commanding 부정 명사 편향 문장	experiencer	Peter's pride satisfied himself. Mary's poverty tortured herself.
(2a) 중립 문장	agent	Tom's father blamed himself. Mary's mother criticized herself.
(2b) 성분통어 편향 문장	agent	Peter's sister blamed herself. Jane's brother criticized himself.
(2c) sub-commanding 긍정 명사 편향 문장	agent	Mary's brother blamed herself. Bob's mother criticized himself.
(2d) sub-commanding 부정 명사 편향 문장	agent	Jane's pride saved herself. Bob's poverty killed himself.

(음영 표시된 칸은 비문법적인 문장)

3. 대명사를 이용한 필터 문장

구분	문장
필터 문장	Bob said that Peter blamed his sister.
	Tom thought that Mary criticized her.
	Tom's brother hit him.
	Jane argued that Mary hated her sister.
	Mary heard that Peter loved him.
	Jane's sister pinched her.
	Mary's brother protected him.
	Mary believed that Jane was proud of her brother.
	Jane's brother loved him.
	Tom mentioned that Jane painted her.
	John's father underestimated him.
	Bob's mother trusted her.
	Jane heard that Mary protected her brother.
	Bob believed that Mary saved her.